

첨부 - 동향

[한국블록체인협회 - 2021년 1월]

「디지털자산」 동향 보고서

2021. 2. 1

목 차

1. 국내 · 외 규모	1
2. 주요국 디지털자산 규제 현황	2
3.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2
4. 국내 · 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6
5. 국내 · 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동향	13

본 보고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時事報道)'를 기초로 하여
정리한 '참고용' 자료임을 밝힙니다.

1 국내 · 외 규모

□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 아시아에서 50% 차지(2021. 1. 20)

○ 메사리 보고서

- * 출처 : 블록체이프레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 절반, 아시아에서 이뤄져...메사리보고서, 2021. 1. 21
-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의 절반이 아시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공개, 특히 그 중 중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규모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남(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의 50%를 차지, 미국과 유럽을 합친 규모)
-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대 암호화폐 유니콘 기업 중 6개가 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 일본, 한국, 홍콩, 싱가포르가 유동성 풀이 깊은 시장 선두주자이며 이외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 전체 투자자들 중 65% 비트코인 보유

○ '2021 글로벌 크립토 사용자 지수' 보고서*(2021. 1. 28)

- * 출처 : 팩스넷뉴스, 바이낸스 리서치,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시장 장악', 2021. 1. 28
- *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바이낸스리서치가 발행, 전세계 178개 지역 6만1000명 이상의 가상자산 투자자의 데이터를 조사해 작성, 이들의 동기, 행동 및 선호도를 위주로 조사했으며, 조사 기간은 2020년 9월15일부터 10월25일까지 약 한달 반 소요
-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투자자들 중 65%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30%는 자신의 가상자산 투자 포트폴리오 중 20%를 비트코인에 할당한 것으로 조사
- 조사 참여자 간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97%, 절반 이상(52%)은 가상자산 투자를 취미로 생각하지 않고 소득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며, 15%는 가상자산이 주요 소득원이라고 답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3가지 주요 이유는 장기투자전략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소유하기 위함(25%), 현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38%), 단기매매의 기회(31%) 등

- 디파이의 성장세도 조사결과에 반영, 가상자산을 보유 목적으로 이용하는 투자자는 39%로 가장 높지만 스테이킹 및 대출(22%), 결제(11%)도 사용, 스테이킹과 대출에 사용하는 코인이 높은 만큼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서비스) 사용률도 상승, 투자가 중 66%가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2 주요국 디지털 자산 규제 현황

□ 현 황

국 가	내 용	비 고
대한민국	2021년 3월부터 개정 특금법 시행해 가상자산 규제, 2022년부터 가상자산 소득 과세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가상자산 전문은행 허가, 시중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유럽	2024년부터 가상자산 포괄적 규제방안 마련, EU가입국 동일 규제 시행 예정	
싱가포르	지불서비스법 통해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가상자산 사업자 당국 허가 필수	
일본	지급결제법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의무 부과, 금융상품거래법 통해 금융 상품에 가상자산 포함	

*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21 블록체인] 세계 각국 가상자산 제도화 고삐 죄인다, 2021. 1. 20

3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 국 외

o 국제결제은행(BIS)

- 국제결제은행(BIS)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결제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2021년 말 시범 적용 시작 예정, BIS이노베이션허브(BISIH)는 CBDC 연구를 2021년 최우선 과제로 선정,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잠재력을 확인할 계획(2021. 1. 22)

- ▶ 연간 업무 계획에 따르면 BISIH*는 CBDC를 활용한 더 빠르고 저렴한 국경 간 결제의 구현 가능성을 연구할 계획, 더불어 계층형(tiered) 소매 CBDC 유통 아키텍처, 개인 투자자 대상 토큰화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분산원장의 프로토타입들도 연구
- * BISIH : 금융 혁신 기술에 대한 중앙은행 간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BIS가 설립한 조직,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등 금융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가 중앙은행과 규제기관에 미칠 영향 등을 연구
- 국제결제은행(BIS)이 세계 중앙은행의 20%가 3년 이내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할 것이라고 관측(2021. 1. 27)
 - ▶ BIS는 2020년 연말 65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이 같은 결과를 밝힘
 - ▶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은행의 86%가 현재 디지털 화폐의 장단점을 연구, 이 중 대부분은 순수 개념연구 차원의 CBDC 연구에서 실험이나 시범적용 프로젝트로 진화하고 있다는 설명, 중앙은행들의 60%는 디지털 화폐 실험에 나서고 있고 14%는 개발이나 시범 프로그램을 추진 중
 - ▶ CBDC에 대한 관심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분석, CBDC에 상대적으로 강력한 개발동기를 갖고 있는 지역은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
- 후버연구소 강연에서 은행들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드는 국제금융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이 "비트코인은 근본적으로 위험한 존재다.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만이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건전한 통화가 시장경제의 핵심이며 중앙은행들만이 건전한 통화를 공급할 수 있다"고 지적(2021. 1. 27)
 - * 출처 : 한국경제, 비트코인 붕괴될 수도...화폐는 중앙은행의 몫, 2021. 1. 28
 - ▶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게끔 설계한 '스테이블 코인'도 문제를 안고 있긴 마찬가지라고 지적, 거버넌스 문제와 자산 지원 유지의 책임이 민간 기업에 있다는 이유

○ 미국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도입을 미국이 먼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견해 피력, 미국 달러화는 준비통화로서 선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CBDC에서 반드시 1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힘(2021. 1. 14)
- ▶ 연준이 디지털 달러에 친화적인 블록체인에 관한 연구 등 관련 연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제 CBDC를 출시하기까지는 수개월이 아닌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중국

- 중국 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국영 은행인 중국농업은행이 현금과 은행 예금을 디지털 위안으로 전환할 수 있는 ATM 시범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심천 지역의 일부지점), ATM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디지털 위안의 입출금과 개인 계좌의 예금을 디지털 위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2021. 1. 11)
- 중국 정부가 디지털 통화(CBDC) 발행을 위해 중국 최대도시인 베이징, 상하이도 2021년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파일럿 실험에 참여할 예정(2021. 1. 24)
- ▶ 베이징 시장은 2021년 핀테크 그리고 다양한 전문 서비스의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고, 상하이 시장 역시 비슷한 의견을 피력
- ▶ 현재 선전에서 디지털 위안에 대한 혁신적 파일럿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광둥성도 이러한 실험에 협력

○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정부가 스텔라개발재단(SDF)과의 협력을 통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개발을 모색, 우크라이나 정부의 디지털전환부는 SDF와 CBDC 프로젝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번 제휴로 우크라이나는 스텔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CBDC를 개발할 전망(2021. 1. 4)

○ 유럽중앙은행(ECB)

- 라가르드 총재는 로이터 넥스트(Reuters Next) 컨퍼런스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해서 언급하며 디지털 통화의 출범까지 앞으로 5년 이상 걸리지 않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것은 안전한 운영이라며 디지털 유로가 지폐를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2021 1. 13)

○ 프랑스

- 프랑스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 간 결제를 위한 디지털화폐(CBDC) 실험을 마침, 프랑스 중앙은행은 영국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SETL과 함께 약 243만 달러 상당인 200만 유로의 통화기금 결제에 성공(2021 1. 19)

○ 국제통화기금(IMF)

- 국제통화기금(IMF)이 CBDC 개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 세계 국가의 80%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발표(2021 1. 14)
 - ▶ 174개 회원국의 중앙은행 법률을 조사한 결과, 전 세계 중앙은행의 80%는 현행법상 디지털 화폐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거나, 관련 법률 체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 현재로서는 합법적으로 CBDC 발행이 가능한 국가는 40곳에 불과
 - ▶ IMF는 잠재적인 혁신이 중앙은행의 의무에 맞지 않으면, 정치적·법적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

○ 메트라이프

- 미국 최대 생명보험사 메트라이프의 기관투자자 전문관리 기업인 메트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MIM)은 거시 경제 전략 입문서(macro strategy primer) '블록체인 블록버스터'(The Blockchain Blockbuster)를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일시적인 유행(Fad)이 아닌 디지털화에 따른 전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앞으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에 더 큰 관심을 둘 것이라고 예상(2021 1. 8)

□ 국 내

- 한국은행은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DT)'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해 2021년 상반기 안에 내부에 정보화 TF를 구성하기로 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역시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

* CBDC는 지급준비에치금,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를 의미한다.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됨에 따라 현금과 달리 관련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한도 설정, 이용시간의 조절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 ▶ 2021년부터 1년간 운영될 CBDC 파일럿 체계의 경우 발행과 환수 관련 업무는 한은이 담당하되, 유통 업무는 민간기관이 맡는 민관 협업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 CBDC의 보유 현황이나 거래 내역 등을 기록하는 CBDC 원장은 다수의 거래 참가자가 동일한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분산원장(블록체인) 방식으로 관리, 당장의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 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CBDC 시험 체계를 가동(2021. 1. 14)

4 국내 · 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 국 외

○ 미국

- 미국 재무부가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포함한 가상자산 규제안 발표,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이 공포한 규제안에는 미국 외 지역에서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포함, 종합 과세는 물론 금융범죄 예방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예 :미국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중 해외에서 관리되고 있는 가상자산일지라도 미화 1만달러가 초과할 경우 이를 FinCEN에 신고)(2020. 12. 31)
- 미국 국세청(IRS)이 올해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세금 미납자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전망(2021. 1. 2)

-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미국 은행과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인프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해석서(법률을 준수하는 활동 내에서는 허가된 결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자적인 노드 검증 네트워크(INVN)에 참여할 수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결제 활동이 가능, 또한 송금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법정화폐를 서로 전환해 사용 가능)를 발표(2021. 1. 4)
- * 미국 은행이 송금, 결제 업무 등에서 디지털 달러로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 활용 가능, 이번 조치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금융 제도권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블록체인 산업에만 한정됐던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권으로까지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란 해석
- 미 국세청이 암호화폐 구매를 연방 소득세에 포함한 ‘2020년 1040’ 양식을 발표,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디지털화폐와 암호화폐처럼 거래 매체로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화폐라고 정의, 새로운 양식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트랜잭션에 암호화폐 구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2020. 12. 31)
- 미국에서 최초로 연방정부의 사업허가를 받은 가상자산 은행이 탄생, (미국 내 49개주의 허가를 모두 받을 필요 없이 연방정부의 승인만으로 전국에서 가상자산 은행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2021. 1. 13)
 - ▶ 앵커리지디지털뱅크(Anchorage Digital Bank)가 재무부 산하의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허가를 받음(2020년 11월 허가 신청), 2017년에 설립된 앵커리지 디지털뱅크는 가상자산 보관, 거래, 스테이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미 사우스다코타주(South Dakota)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와이오밍주에서 허가를 받은 크라켄(Kraken)과 아반티(Avanti)도 OCC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가상자산 관련 스타트업인 비트페이(BitPay)와 팩소스(Paxos)도 신청한 상태
-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범죄조직 및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금융기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암호화폐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답변(2021. 1. 19)
 - * 오바마 정부 후반기였던 2014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역임
 - ▶ 옐런은 "적어도 거래 측면에서는 많은 암호화폐가 불법적인 자금조달에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사용을 줄일 방안을 검토하고, 이런 경로를 통해 자금세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

- ▶ 엘런 의장은 과거 연준 의장으로 일하면서 여러 차례 발언들을 통해 암호화폐 영역을 평가 절하, 재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트레이블룰(자금이동규칙)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많은 규제를 감독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19일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과 달리 22일 상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가상자산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가상자산에 대한 원칙을 제시(2021. 1. 24)
 - ▶ 가상자산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부정적이고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기술 혁신과 핀테크 혁신을 위한 효과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연방준비위원회 및 기타 연방은행 및 증권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 옐런 후보자는 공식 입장을 담은 서면답변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가상 자산 정책이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과 가상자산을 통한 금융시스템 혁신의 두마리 토끼 정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
- 전 재무부 관리이자 리플 자문위원이었던 마이클 S. 바(Barr)가 바이든 행정부의 차기 통화감독국(OCC) 국장에 임명될 수 있다고 전망, 미국 상원에서 인준을 받고 나면 바는 브라이언 브룩스 OCC 국장 대행의 뒤를 잇게 됨(2021. 1. 20)
 - ▶ 마이클 S. 바(Barr) : 미시간 대학교 포드 공공정책학과의 학장, 이와 같은 소식은 바가 법학 교수인 메호사 바라다란과 함께 차기 OCC 국장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지 며칠 안 되어 나온 것
 - ▶ 바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드-프랭크 법을 통해 은행 규제를 담당했던 재무부 소속 공무원이었으며, 지난 2015년에 리플 이사회에 합류했지만 최근 리플랩스 대변인은 바가 더이상 자문위원회의 일원이 아니라고 답변
 - ▶ 브룩스(전임 OCC 대행)는 OCC 직무대행을 그만두기 전에 이같은 결정을 담은 문서를 작성했지만 이는 미국 연방관보(새로운 법의 공포나 정부의 정책을 고시하는 미 정부의 공식 저널)에 게재하지 않아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브룩스의 OCC가 결정한 정책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대로 이행될 것인지는 신임 국장의 결정에 달린 셈

-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암호화폐 월렛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60일 연장 발표, 변경 사항이 연방 공보에 게재되는 1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60일 동안 제안 규정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 가능(2021. 1. 26)
- ▶ 제안 규정은 비수탁 월렛 이용 거래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에 더 강화된 신원인증 및 거래 보고 기준을 부과하겠다는 내용(비수탁형 월렛을 취급·거래하는 은행 및 금융서비스업체(MSB)는 30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1만 달러 이상 거래에 대해 편센에 의무 보고)
- ▶ 코인베이스, 서클, 크라켄 등을 비롯한 암호화폐 기업들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 도입에 크게 반발, 뿐만 아니라 연휴 포함 15일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의견수렴 기간을 제공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며, 관보 게재일이 아닌 규정 발표일을 시작일로 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함

○ 중국

- 중국 국가 주도 블록체인 연맹 BSN이 2021년 주요 사업 목표로 해외 네트워크 확대와 글로벌 결제망 구축 등을 꼽음, '2020년도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총정리' 문서를 발표하고, 글로벌 디지털 결제망 구축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대중화 지속 추진, BSN 프라이빗 네트워크 플랫폼 및 개발 도구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BSN 생태계 조성 및 응용 부문 연구·개발 확대 등을 올해 주요 사업 목표로 제시(2021. 1. 11)
- * BSN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센터(國家信息中心, SIC)가 주도하는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온페이 등 국영 대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레드데이트(北京紅囊科技)등이 네트워크 개발에 깊이 관여

○ 유럽중앙은행(ECB)

- 유럽중앙은행(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비트코인이 투기성이 강하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 피력(2021 1. 13)
- ▶ 로이터 넥스트(Reuters Next)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관심을 모을 만한 사업과 비난받을 만한 자금 세탁 활동 두 가지 모두 했다는 점에서 규제 적용을 위한 합의를 위해 금융행동태스크포스(FATF)와 같은 세계적인 협력과 다자간 행동이 절대적으로 필요

○ 영국

- 영국의 금융감독청(FCA)이 미등록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지시(2020년 12월 15일까지 라이선스 신청이 안 됐거나 신청을 철회한 기업들은 2021년 10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2021. 1. 11)
 - ▶ 해당 사업자들은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에 포함되는 모든 자금이나 암호화폐를 반환해야 하며, 상황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이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대체 옵션을 제공 의무 有, 2021년 1월 10일 이후에도 라이선스가 없는 채 서비스 운영에 나서는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강조, (2020년 1월 10일까지 라이선스를 취득한 영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은 4개 기업), FCA는 임시등록부를 공개해 완전한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함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암호화폐 관련 투자와 대출 상품이 매우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경고, 영국계 글로벌 은행 HSBC가 영국 내 암호화폐 투자자의 거래소-은행 간 자금 이체를 차단하였고 HSBC 외에도 다수의 영국 현지 은행들은 이용자들이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해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남(2021. 1. 11)
-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가 기존의 어떤 암호화 화폐도 장기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발표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이 주최한 온라인 회의)(2021. 1. 25)
 - ▶ 영란은행도 유럽중앙은행(ECB)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의 발행 가능성을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베일리 총재는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는 개인의 거래와 공공의 이익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덧붙여 말함

○ 러시아

- 러시아에서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계좌를 동결하는 법안을 추진 중, (내용 :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유통 상황에 개입할 수 있도록 계좌를 동결하고 차단할 권한을 부여), 해당 법안은 2020년 12월 법무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2021년 10월에 공포될 예정, 러시아는 2021년 1일부터 ‘디지털금융자산법’을 시행(암호화폐 보유와 거래는 합법화되고 결제는 금지)(2021. 1. 11)

- 러시아 정부가 특정 공무원들*에게 2021년 4월까지 소유 중인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매각하라고 지시(2021. 1. 23)

* 특정공무원 : 러시아 연방법 제2조 1항에 기재된 '개인'을 말함, 관공서의 관리나 대리직, 러시아 중앙은행의 이사회 소속, 러시아 연방 소유 공기업이나 지역행정의 책임자 등이 포함

- ▶ 앞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0년 12월, 특정 공무원들이 2021년 6월 30일까지 암호화폐 보유량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령에 서명, 또한 반부패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 공무원들의 암호화폐 소유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
- ▶ 러시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협회의 아르템 그리고리프 연구실장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경제위원회의 스타케비치 위원은 암호화폐 유통 및 특정인의 암호화폐 소유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이 아직 없다며 규칙 구현과 규정 준수를 어떻게 감시 및 확인할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

○ 일본

- 영국 재무부에 이어 일본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리플(XRP)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 발표, 일본 금융청(FSA)은 결제서비스법 정의에 근거 XRP를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로 분류(일 금융청이 XRP의 법적 지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2021. 1. 13)

- ▶ 일본 결제서비스법은 불특정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며, 법정화폐로 액수를 표기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에 해당한다고 정의*

* 암호화폐는 불특정인이 물품 구매, 대여, 서비스에 대한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 불특정인과의 판매, 구매, 교환이 가능하며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양도될 수 있는 자산 가치(전자 기기 및 기타 물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어야 하며, 엔화, 외화, 기타 화폐로 표기된 자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필리핀

-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이 제도를 개정하여 디지털 자산 기업을 위한 라이선스 체제를 제정, 규제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암호화폐 금융서비스 공급자도 필리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을 길이 열리게 됨 (2021. 1. 27)

- ▶ 필리핀의 모든 암호화 금융 서비스 회사는 BSP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한 후 합법적 서비스 제공 가능,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암호화폐 파생상품 플랫폼에도 적용
- ▶ 필리핀 암호화폐 기업은 모두 자금세탁 방지, 테러활동 지원 중단에 관한 법안을 포함한 외국의 규정도 준수 필요, 이에 따라 일정 범위 이상의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송금인과 수령인 모두의 정보를 제출 의무 有

○ 콜롬비아

- 콜롬비아 기업감독청(Superintendencia de Sociedades)이 자국 기업들의 합법적 암호화폐 구매를 승인, 2017년 콜롬비아 정부는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음, 앞으로 콜롬비아의 기업은 법적으로 자본을 사용하여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 단 자문을 받은 후 기존 상업 규정에 명시된 규정 준수 必(2021. 1. 4)

○ 인도

- 인도에서 세계 최초의 오프라인 암호화폐 은행 출범, 인도의 온라인 암호화폐 은행 카샤(Cashaa)와 유나이티드 멀티스테이트 크레딧 코오퍼 소사이어티(United Multistate Credit Co-op Society)는 공동으로 자이푸르 지역에 암호화폐 은행 유니카스(Unicas)의 첫 지점 개설(2020. 12. 30)
- 인도가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자산(암호화폐)를 금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 인도 민간 업체의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인도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 움직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바르티야 자나타당이 인도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입법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2021. 1. 30)
- ▶ 2018년 인도는 모든 민간 가상자산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음

□ 국 내

- 우리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개정된 ‘특금 법령’ 이 2021년 3월 시행 예정, ‘2020년 세법 개정안’ 의 국회 본회의 통과(2020. 12. 2)로 2022년 1월 1일부터 세금 부과
- 한국거래소는 비트코인 파생상품 출시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피력(2021. 1. 26)
 - ▶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뒷받침되면서 세계 2위의 선물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2월 이더리움 선물 상품 출시를 앞두는 등 가상자산 파생상품 서비스 확대에 적극나서고 있지만, 한국 거래소는 가상자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정적인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선불리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
 - ▶ 다만, 한국거래소 역시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자 수요는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난 한 해 동안 비트코인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단기간에 가격이 상당히 뛰어오르면서 거래소 단에서 비트코인 파생상품 개발 니즈를 감지하고 있다는 설명

5 국내 · 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동향

□ 국외 기업 및 금융기관

- 페이스북, ‘디엠’
 -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21년에 스테이블코인 ‘디엠(Diem)’을 출시할 계획(2021. 1. 18)
 - ▶ 페이스북은 디엠을 이용해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결제서비스를 제공 하겠다는 전략, 디엠 거래 원장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블록체인으로 거래도 확인 가능
 - ▶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디엠’ 출시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페이스북은 일단 출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

○페이팔

- 글로벌 핀테크 업체 페이팔이 2023년에 비트코인으로 20억 달러(약 2조 2천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릴 것이란 전망(미즈호증권의 보고서를 공개) (2021. 1. 16)
- ▶ 페이팔은 2020년 11월 암호화폐 매매 및 보관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고, 미국 내 페이팔 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
- ▶ 미즈호증권의 댄 돌레 애널리스트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3년에는 페이팔 전체 매출 중 10%는 비트코인을 통해 발생할 것이라며 비트코인 매출은 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페이팔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이용자들의 참여가 극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 제시)
- ▶ 페이팔은 암호화폐 매매 기능을 2021년 상반기 중 자사 간편송금서비스 벤모로 확장하고,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 또한 이용자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전 세계 2천600만 가맹점에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

○ 하버드, 예일, 브라운 대학교

- 미국 하버드와 예일, 브라운과 같은 유명 대학 기금이 직접 가상화폐를 사들이고 있다고 블록체인 관련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2021. 1. 25)
- ▶ 소식통들은 이들 대학 기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등을 통해 가상화폐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면서 많은 대학기금이 비중은 미미하지만 가상화폐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했다고 전함
- ▶ 이와 관련해 코인데스크는 대학기금의 가상화폐 투자가 2019년 중반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하면서 대부분 대학기금이 적어도 1년 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 같다고 설명, 또한 코인데스크는 공적연금과 확정 급여 연금도 가상화폐 투자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임
- ▶ 하버드대학은 4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 최대 대학기금을 가지고 있고 예일 대학기금의 규모도 300억달러에 달하며, 미시간과 브라운대학 기금도 각각 125억달러와 47억달러 규모

○ 골드만삭스

- 월가를 대표하는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디지털자산 수탁(custody) 업무 참여를 추진 중, 특히 골드만삭스는 수탁업무를 시작으로 헤지펀드 등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프라임 브로커리지까지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예상(2021. 1. 17)
- * 프라임 브로커리지 : 헤지펀드와 같은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운용에 필요한 대출과 자산 대여, 자문, 리서치 등 종합적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 골드만삭스가 디지털자산 수탁업무 참여를 위해 업계에 정보제공요청서(RFI)를 발송, RFI는 최소한 한 곳 이상의 잘 알려진 디지털자산 수탁업체를 상대로 2020년 말 발송된 것으로, RFI에서 골드만삭스는 사업 추진 시점에 대해 “아주 조만간”이라고 적시

○ 블랙록(BlackRock)

- 관리 자산규모가 7조 8,1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자산관리 기업 블랙록(BlackRock)이 최소 2개의 비트코인 선물 투자 펀드 출시를 검토 중, 블랙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블랙록 글로벌 알로케이션 펀드(BlackRock Global Allocation Fund)와 블랙록 펀드 V(Black Rock Funds V) 등 두 건의 투자 상품 설명서를 제출(2021. 1. 20)
- ▶ 보고서에서 블랙록은 암호화폐 선물 구매를 실행할 때 어떠한 상품 거래소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펀드는 현금 결제형 비트코인 선물에만 투자할 것으로 예상, 현재 비슷한 선물 상품을 거래하는 거래소 중,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거래소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가 유일, 이전까지 블랙록은 정식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언급한 적 無
- ▶ 블랙록은 현재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부문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 중

□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

○ 한컴위드

-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인 '한컴위드'는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디지털 금융 사업을 위한 6자간 MOU를 체결, 한컴위드는 모바일 결제 솔루션 전문 기업 티모넷, 블록체인 기반 금융 솔루션 기업 XTOCK(엑스탁), 글로벌 금융 유동성 공급 업체 BASIC(베이직), 호텔 ICT 솔루션 기업 루넷, 숙박 전문 예약업체 호텔엔조이 등 5개 기업과 함께 글로벌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기로 상호 협의(2021. 1. 5)
- 한컴위드는 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DS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기반으로 XTOCK의 블록체인 금융 솔루션을 연계해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개발, 플랫폼에는 한컴위드의 보안,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과 함께 티모넷의 모바일 결제 솔루션도 적용될 예정(2021. 1. 5)

○ 탐앤탐스

- 계란 흰자를 기반으로 한 디저트 프랜차이즈이면서 1세대 토종 커피전문점 탐앤탐스의 종속 브랜드인 '에그탐탐'(2020년 8월 강남에 1호점 오픈)은 2020년 하반기 전국 에그탐탐 매장 결제 시스템으로 가상자산 'ETT'(카카오 클레이튼 기반의 디지털자산)를 활용한다고 발표, 음료 프랜차이즈와 배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목표(2021. 1. 5)

○ 아이스아메리카노

- 주식회사 아이스아메리카노(승차 공유플랫폼 앱 가치타와 소셜교통정보 플랫폼 더더더 앱을 개발)는 이더리움 기반의 자체 코인 '아이스아메리카노코인(LAC)'을 발행(디지털자산을 직접 발행해 결제 서비스 준비), 아이스아메리카노 코인은 회사의 모바일 서비스 활용 구매, 보상 등에 활용될 전망이며 이용자들은 대리운전과 승차 공유 등 서비스를 해당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을 것(2021. 1. 5)

○ 다날

- 달콤커피를 운영하는 다날은 암호화폐인 페이코인(PCI)을 통한 결제를 늘리는 중, 세븐일레븐, CU, 미니스톱 등, 대형 편의점의 전국 가맹점 뿐만 아니라, 도미노피자, BBQ치킨, KFC, 달콤커피 등 가능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속 증가, 다날은 온오프에 10만여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기에 가맹점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2021. 1. 14)

- ▶ 다날은 2020년 5월 소셜 노래방 앱 '썸씽'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썸씽 이용자들이 콘텐츠 보상으로 얻은 썸씽토큰(SSX)을 페이코인(PCI)으로 전환해 페이프로토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게 함

○ 산토리니 커피

-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 '산토리니 커피'도 2019년 하반기부터 '타이토스' 코인과 손잡고 타이토스 코인으로 결제를 허용(2021. 1. 14)

※ 이처럼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에서 지적된 문제를 일부 해소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개발됐고 해당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혜택이 증가, 기존 비트코인 결제는 트랜잭션(블록체인 전송 시스템)문제로 결제 시간이 길다는 것과 가격 변동성이 문제였지만 최근에 나온 암호화폐 결제는 이를 상당 부분 해소(탐앤탐스, 다날, 산토리니커피 사례와 관련)

○ 엠게임

- 엠게임은 결제 시스템 전문 개발 업체 아이비피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수단 및 관련 사업 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게이미 자사 게임에 아이비피(IBP)의 특허권을 이용한 가상자산 직접 충전 선불형 전자 결제 수단 개발)(2021. 1. 12)

- ▶ 아이비피는 충전식 선불카드, 정산, 카드가맹점 등 결제 시스템 개발 전문 업체(2018년 특허 등록이 완료된 블록체인 기술을 연동하는 '가상자산 충전식 카드 결제' 서비스를 개발해 파라다이스 그룹 리조트 부문, 제주신화월드(중국 란딩그룹) 역사공원 등에 진출) 국내외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 활성화 주력

○ 넥슨(NXC)

- 김정주 NXC 대표는 2016년 한국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인수하고 2018년 유럽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스탬프를 매수, 2018년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브로커리지 업체 타고미에 투자도 집행, 2021년 1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인수도 거론, 게임과 가상자산을 접목한다기 보다는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한다는 전략(2021. 1. 21)

○ 위메이드

- '미르의 전설'로 유명한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는 자체 가상자산 '위믹스 토큰'을 출시하며 가상자산 시장 진출, 해당 가상자산은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에서 활용, 위메이드는 또 게임 내부에서 활용할 '토큰 거래소'도 준비 중(2021. 1. 21)

○ 넷마블

- 넷마블은 가상자산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초점, 넷마블은 2020년 12월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기기를 제한할 수 있는 블록체인 특허를 출원, 여기에는 특정 조건을 갖췄을때 코드가 실행되는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기술 '스마트 컨트랙트'가 활용, 이 밖에도 게임 아이템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최근 게임 유저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술 특허 출원(2021. 1. 21)

○ 아스타투어

- 아스타투어는 대형 호텔업체 등과 판매협약을 체결을 확대, 다른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과 다른 점은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과 숙박 상품을 결합한 OTA라는 점, 아스타투어는 블록체인(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 기반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숙박 상품가격을 대폭 할인해 판매(2021. 1. 26)

○ 아고다(Agoda)

- 디지털 여행 플랫폼인 아고다(Agoda)는 블록체인 기업 바이낸스의 가상자산 숙박 예약 플랫폼인 트라발라닷컴과 전략적 협약, 이에 따라 트라발라닷컴 유저들도 전 세계 60만 개 이상의 아고다 호텔 예약 가능(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코인 등 30여가지 가상자산 사용)(2021. 1. 26)

○ 신한은행

- 신한은행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진출을 위해 커스터디 전문기업인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지분투자 추진, 이번 투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블록체인 기술기업 블로코, 디지털자산 리서치기업인 페어스퀘어랩이 설립한 KDAC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연구개발(R&D) 및 공동사업 추진을 목표로 진행(2021. 1. 7)
- 신한은행이 참여한 가상자산 수탁서비스 기업 케이닥(KDAC, 한국디지털자산수탁, Korea Digital Asset Custody)이 가상자산 종목에 대한 실시간 정보 취합을 위해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쟁글 운영사 크로스앵글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발표)과 협력(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각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정보 파악과 데이터 공유가 필수적이란 판단), 양사는 실제 금융권 수준의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 데이터 처리 등 기술 분야 전반에서 협력할 예정(2021. 1. 12)
- 신한은행은 미국의 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 기업인 비트고(BitGo)*, 커스터디 전문기업인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과 함께 디지털자산 분야의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021. 1. 28)
 - * 비트고(BitGo) :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0% 이상을 처리하는 세계 최대 기업으로 전 세계 400개 이상의 기관고객을 확보, 특히 아시아 지역 고객사를 위한 100% 오프라인 환경에서 디지털자산을 수탁할 수 있는 서비스 완비, 일본의 경우 이미 일본금융청(FSA)의 승인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25%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
 - ▶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향후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전반의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및 커스터디 솔루션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 또한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자 등 다양한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बैं크 오브 싱가포르(BOS, Bank of Singapore, 싱가포르 중앙은행)

- बैं크 오브 싱가포르(BOS, Bank of Singapore)는 최근 공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가 가치 저장수단으로 금을 대체할 가능성은 높지만 매력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법정통화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힘(2021. 1. 26)

- ▶ 법정통화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가상화폐의 지나친 변동성 때문으로 이러한 비효율성으로 인해 부적절한 교환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 ▶ 다만 신뢰와 변동성, 규제 수용 및 평판 위험과 같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가상화폐는 잠재적인 안전자산 및 투자자산 다각화(다변화)를 위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도 가능
- ▶ BOS는 소규모 투자자 또는 헤지 펀드보다 장기적 관점을 가진 자산관리회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하면 유동성은 높이고 변동성은 낮추며 투기보다는 펀더멘털에 의해 가격이 결정됨으로서 변동성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

□ 해외 투자자

○ 마이클 세일러(나스닥 상장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 과도한 세금은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라디오 진행자 켄 릿코우스키와의 인터뷰에서 밝힘(2021. 1. 25)
- ▶ 세금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부과된다면, 시장참여자들은 차라리 비트코인 소유권 상실을 주장할 것(예 : 비트코인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렸다는 식으로 얼마든지 세금 회피), 시장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할만한 세금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